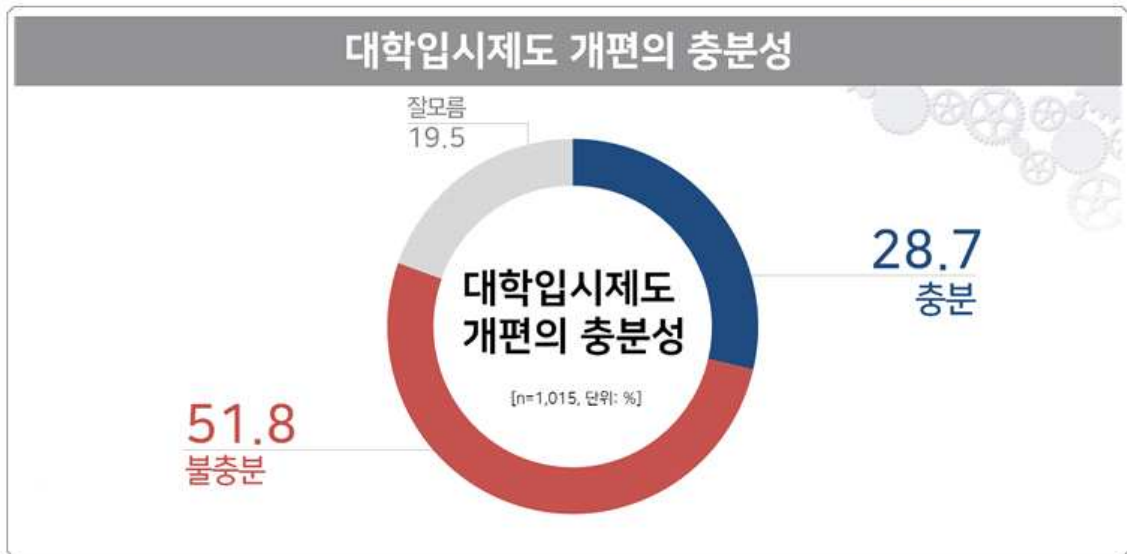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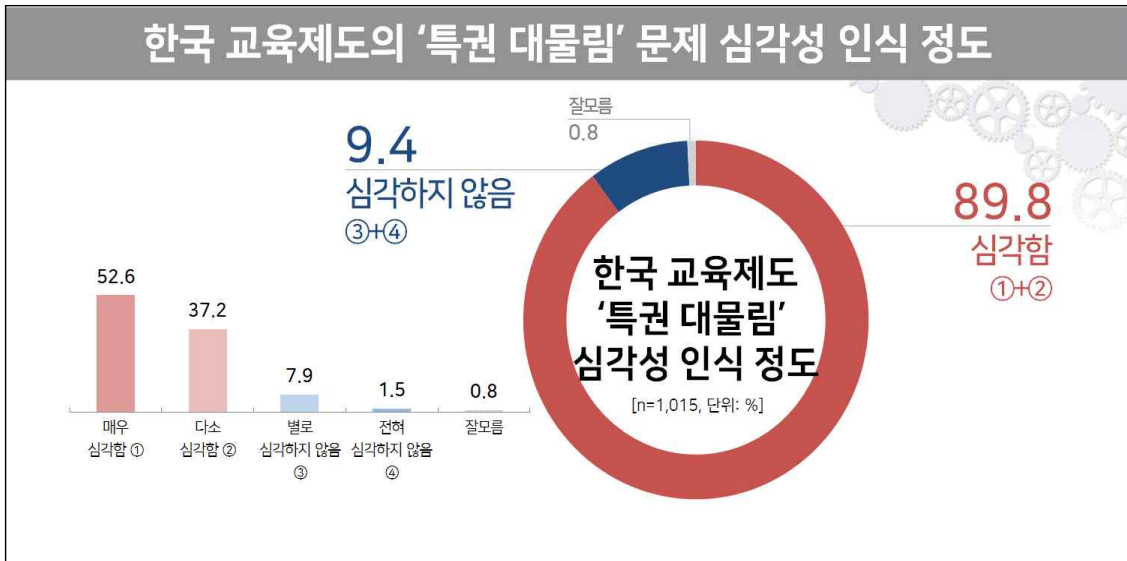


■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촉구 시국 선언 기자회견 예고보도(2019. 10. 31)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11월 4일(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시국 선언 기자회견 개최

11월 4일(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특권 대물림 관련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9월 9일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력한 교육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3일 교육 개혁 관련 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수능 정시를 확대하고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수능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교육 고통을 줄이는 일인지 걱정스럽습니다. 학종 개선이나 수능 정시 확대 등 입시 공정성 문제로는 특권 대물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도 국민들 28%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교육 개혁은 입시 방식의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자체를 없애거나 쇄신하는 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대책을 충분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 오피니언들과 일반 시민들이 정부를 향해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관련된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1월 4일 발표될 시국선언문은 선언 동참 서명을 위해 미리 발표합니다. 이 선언문은 위의 취지를 반영해 김상봉 교수(전남대 철학과)께서 기초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언론인들께도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촉구 시국 선언 기자회견
- 주 관 :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촉구 서명자(시민/오피니언들) 일동
- 일 시 : 2019. 11. 4.(오전 11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주요 프로그램

□ 시국선언 회견문 낭독 : 오피니언과 시민들 5명

□ 오피니언/시민 짧은 발언대 : 오피니언들과 시민들 5명

□ 특권 대물림 교육 열차 멈춤 퍼포먼스

▪ 특권 대물림 실상 교육 실태 그래픽 전시전

▪ 특권대물림 교육열차를 형상화하고 이 열차를 중단시키는 퍼포먼스

▪ 특권대물림 교육열차 중단을 위한 인증샷 및 SNS 해시태그, 올리기

□ 변화를 위한 외침

▪ 서명자 대표로 당일 참석하는 100인의 외침

□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

※시국 선언 참고사항

-이 선언 기자회견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선언에 참여하는 분들이 중심이 되는 별도의 행사입니다. 저희는 행사를 지원하는 실무 역할을 맡습니다.

2019. 10. 31.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오피니언 일동

(실무 담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 구본창 정책국장 (02-797-4044, 내선 511)